

출애굽은 인간의 구속에 대한 서사시이다. 출애굽기는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출애굽기는 암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묘사한다.**

I. 명칭

출애굽기의 명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LXX)에 붙인 Exodus 를 의역한 것이다. 그 의미는 탈출, 출발 이란 뜻이다 (출19:1). 본서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II. 저자

출애굽기의 저자 역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이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인용하시면서 오경이 모세의 글임을 증거하셨다는 점이다.

III. 기록 목적과 연대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으며 애굽의 우상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열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유월절의 사건, 홍해를 건넌, 광야생활의 기적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다.

출애굽기의 기록연대는 사건이 B.C. 1446년이었음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출애굽기의 저술 연대는 B.C. 1446년부터 광야에서 생활한 40년 동안의 1407년 사이로 추정된다.

IV. 출애굽기의 구조

출애굽기가 보여 주는 구조의 다양성과 함께 다양성이 보여 주는 일치성이 있다. 출애굽기 내용을 지리상으로 구분해 볼 때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1-12장),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13-18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19-40장) 분류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1-18장까지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심과, 19-40장까지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볼 수 있다. 구속의 요청 (1장), 구속의 준비 (2-4장), 구속의 성취 (5-15장), 승리의 행군 (15-18장). 그리고 택한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은 언약의 체결과 율법을 주심 (19-34장), 언약의 증표인 성막의 건립 (35-40장) 으로 나눌 수 있다.

V. 출애굽기의 주제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준다.

- (1)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 (2)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 (3)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의 구원자이시다.
- (4) 하나님은 일군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 (5)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생활을 요구하신다
- (6)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VI.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은 없지만 각종의 예표가 충만하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 거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류의 구원자를 뜻하는 유월절 어린양 (고전 5:7),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만나의 사건(요6:48), 생수를 의미하는 반석의 물 (고전 10:4),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 제도(출 28, 29장) 등이 있다.

- (1) **모세:** 구약에서 예수를 가장 강렬하게 예표하는 인물이다(신18:15).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구원자이었다. 어릴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부귀영화를 거절했다. 율법의 수여자이고, 중보자이었다.
- (2) **유월절** (요1:29, 36; 고전5:7):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이다.
- (3) **7대 절기:**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각 측면을 보여준다.
- (4) **출애굽:** 바울은 출애굽을 세례의 예표로 보았다 (롬6:2; 고전10:1)
- (5) **만나와 물:** 영혼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6장; 고전10장)
- (6) **성막:** 재료와 색상, 각종 기명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한다. 특히 예수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잘 형상화 한다. 사물로 된 신학서적이라고 불리울만 하다.
- (7)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중보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다 (히4:14-16;9:11, 24-28).

VII.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장

- (1) **핵심단어:** 구속 Redemption. 애굽의 속박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됨
- (2) **핵심절:** 출 6:6; 19:5-6
- (3) **핵심장:** 12-14장. 유월절의 어린양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신다. 유월절이 구속의 사랑이라면, 홍해는 구속의 능력을 증거한다.

VIII. 출애굽기의 주요장면들

- (1) **노예생활 (1-2장):**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난 후 400여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된다. 믿음의 선진들인 족장들은 죽었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으나 이제는 3백만이 넘는 백성으로 국가를 이루게 된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 12왕조) 모르는 왕이 출현하여 (애굽의 18왕조) 노예화가 되었다. 히브리 백성들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 (2) **출애굽 (3-4장):**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신다. 모세를 건져준 바로의 딸은 18왕조의 최초의 여자 바로 합셋수트 일 것이다. 최근에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열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다.
- (3) **유월절 (12-19장):**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한다. 유월절의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어린양의 피가 애굽제국을 무너뜨린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다.
- (4) **율법을 받음 (20-24장):**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지를 훈련받는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는다. 그 요구는 완전하라 이다.
- (5) **성막의 건립 (25-40장):** 광야생활의 절정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운

다. 성막뜰, 성소, 지성소의 기명들과 모든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VIII. 출애굽기의 연구

1.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의 생활의 연도: 430년 (창15:13, 출12:40, 행7:6-7)

2. 출애굽 당시의 애굽 왕조와 출애굽 연대: 요셉의 왕조는 강력한 12왕조 (주전 1991-1730) 이었다. 그후에 힉소스 왕조가 침입하고, 다시 본토인들이 주권을 되찾는다. 이것이 18왕조이다. 제 18왕조의 첫 통치자인 아모스 (Amos, B.C. 1584-1560)가 나타나 힉소스를 북쪽 팔레스틴까지 쫓아냄으로 애굽왕조는 다시금 강력하게 부활되었다. 애굽의 원정은 투트모스 3세 (주전 1504-1450)를 거쳐 아멘호텝 2세 (Amenhotep II, B.C. 1450-1426)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애굽의 영토는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확장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애굽은 극도에 달하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못하는 왕 (1:8)은 아모스일 것이다. 모세의 나일강에서 구출한 바로의 딸은 합셋슈트 (주전 1504-1483) 공주이다. 애굽의 최초의 여자 바로로 그의 업적은 최근에 발굴된 수많은 건축물과 자료를 통해서 강력한 군주임이 확인되었다.

출애굽의 연대는 두가지 설이 있지만 주전 1446년 이다 (왕상6:1, 삿11:26 등).

XI.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 : 피의 구속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피가 출애굽기에도 흐른다. 피와 생명(창4:11; 9:4,5), 피와 할례(출4:25), 피로 인해 구원받는 유월절 (12장), 생명을 약속한 언약의 피(출 24:8), 피뿌림을 위한 구체적 방법의 제시 늦제단 (27:1-8; 29:12,16), 할례, 유월절 어린양, 제물들을 통해서 구속의 피가 흐른다.